

GIST, MIT에 '둥지' 틀고 글로벌 피지컬 AI 공동연구 본격화

- MIT 내 'GIST-MIT 인간중심 피지컬 AI 상호작용 연구센터' 구축... 글로벌 협력 본격화
- 美 현지 방문연구공동 심포지엄부터 서울 ICM 공동 워크숍까지 양국 오가며 실질적 협력 본격화
- 로봇 학습·생체신호 AI·멀티모달 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추진



▲ 5월 20일(수) MIT CSAIL에서 진행된 'GIST-MIT PAIR-HCI 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AI학과 김승준 교수 연구팀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컴퓨터과학·인공지능 연구소(CSAIL)와 함께 추진하는 'GIST-MIT 인간중심 피지컬 AI 상호작용 연구센터(PAIR-HCI Center)'가 MIT 내 물리적 거점을 마련하고 공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PAIR-HCI(Physical AI Research for Human-Centered Interaction)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GIST와 MIT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사람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중심 피지컬 AI 상호작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GIST와 MIT는 2021년부터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센터 구축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

지난 5월 20일(수) MIT CSAIL(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다니엘라 러스(Daniela Rus) 소장과 GIST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MIT CSAIL이 위치한 스타타센터(Stata Center)에 PAIR-HCI 센터의 현지 공동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 공간은 양 기관 연구진의 정례 연구회의와 중·장기 방문연구, 공동 실험 설계, 연구자 교류, 공동 심포지엄 등을 위한 협력 공간으로 활용된다.

GIST 연구진은 5월 2일(토)부터 6월 2일(화)까지 MIT에 방문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기간 진행된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 ▲자율주행 ▲로봇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포용적 인터페이스 등 인간중심 피지컬 AI 분야의 연구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후속 공동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행 성능, 편의 기능, 안전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다.



▲ 5월 MIT CSAIL에서 열린 'GIST-MIT PAIR-HCI 공동연구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협력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GIST 연구진은 7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머신러닝학회(ICML 2026)를 계기로 방한한 MIT 연구진과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GIST 연구진이 SDV·자율주행·로봇·XR 환경에서의 사용자 상태 인식과

인간중심 상호작용 기술을 소개했으며, MIT 연구진은 로봇 시뮬레이션과 생성형 AI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피지컬 AI 분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 7월 6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IST-MIT PAIR-HCI 공동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 대학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로봇 학습·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생체신호 기반 사용자 상태 이해, 고품질 멀티모달 데이터세트 구축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공동 실험과 논문 발표, 연구인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MIT의 로봇 학습·시뮬레이션 기술과 GIST의 인간중심 HCI·XR 설계 및 평가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동로봇·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이동형 XR 등 실세계 응용 분야로 연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김승준 교수 연구팀은 "이번 현판식과 공동 워크숍은 PAIR-HCI 센터가 **MIT 내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GIST와 MIT의 강점을 결합해 사람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